

연극무대·스크린 오가는 감초배우 유재명

# “가족과 오순도순 ... 그 곳이 명당이죠”



최근 개봉 영화 '명당' 출연 '안시성'·'협상' 등과 맞대결 다음달 연하 여친과 결혼도

“명당이란 게 뭘까요? 지금 사는 그곳, 가족과 소박하게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집이 명당 아닌가 싶어요.”

연극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 배우 유재명(45)이 추석 시즌에 개봉한 영화 '명당'에서 주인공 '박재상'(조승우 분)의 조력자 '구용식' 역을 맡아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 서울 팔판동 한 카페에서 만난 유재명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영화에서 제가 한 역할 중 가장 비중이 큰 캐릭터죠. 좋은 기회가 생기면서 최고로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전생애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길로 계속 가다 보니 많은 분이 도와 주시더라고요.”

일편 아니라 사적으로도 중대사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중순 떠돌이집안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그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을 붉히며 “최대한 소박하고 특별하지 않게, 심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속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 '명당' 출연 제의가 왔을 때는 너무 큰 역할이라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용식이 단순히 박재상의 조력자가 아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인물



이라는 점이 끌렸다고.

“구용식은 욕망이 들끓는 사대부 사이에서 정말 간절하게 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죠. 왕이 누가되든 무슨 상관인가. 일단 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서민적 욕망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그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았다. 송강호·설경구·김윤석 등 연극 무대에서 기본기를 닦은 배우들처럼 그의 연기력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배우는 본능적으로 ‘연기 잘한다’는 말을 갈구하

면서도 그 말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연극에선 자기 연기를 볼 순 없지만 영화는 다르잖아요. 자기 연기를 보면 ‘아 저걸 어떻게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죠.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에요.”

그는 부산에서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을 설립해 직접 연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연출 경험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실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제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전체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견 잠정인데 안 좋은 점도 있죠. 너무 역을 객관화하려고 하고 연출적 시각이 있다 보니 자기주장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명당”은 이번 추석 시즌 ‘안시성’, ‘협상’, ‘물고’ 등과 정면승부를 벌여야 한다. 관객이 ‘명당’을 봐야 할 이유를 묻자 그는 “거대 서사인 동시에 한국적 정서가 밑바탕에 깔린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력자들이 왕권을 쟁취하려고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영화 보고 나서 관객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침대 한번 바꿔볼까?’ 그만큼 풍수지리가 우리 일상에 많이 녹아있다는 의미죠.”

그는 영화를 찍으면서 ‘명당’의 의미를 생각했다고 한다.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방 한 칸에 살았어요. 지금 우리 대학생, 사회초년생들도 마찬가지죠. 책상 하나, 냉장고 하나 놓을 수 있는 방 한 칸이 소중한 세상이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명당 아닐까요.”

## 유재석, JTBC ‘요즘애들’ 출연

### 젊은세대 출연진 섭외 중

JTBC는 오는 11월 ‘국민 MC’ 유재석(사진)이 출연하는 새 예능 ‘요즘애들’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수 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다른 ‘요즘 애들’은 ‘급식제’로 대화하고, TV대신 스마트폰 ‘짤’로 소통한다. 이른바 Z세대(Generation Z)로 불리는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인 만큼 영상제작, SNS 활용 능력이 두드러지는 점이 특징이다.

‘요즘애들’에서는 이들이 제작한 영상을 요즘 어른이 보고, 궁금한 요즘 애들을 만나 특별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과정을 담는다. 요즘 어른을 대표하는 멤버는 유재석이고, 유재석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출연진은 섭외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슈가맨’, ‘홀리네 민박’, ‘한끼줍쇼’를 제작한 윤현준 책임프로듀서와 ‘냉장고를 부탁해’를 연출한 이창우 PD가 제작한다.

이날부터는 공식 홈페이지(<http://http://tv.jtbc.joins.com/event/pr10010954/pm10049997>)를 통해 본격적인 ‘요즘애들’ 모집을 시작했다.

영상을 다룰 줄 아는 만 24세 이하의 ‘요즘애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성이 담긴 자기소개 영상을 제작 진에게 보내면 된다.

/연합뉴스



## 미나·류필립 부부, KBS ‘살림하는 남자들2’ 하차

### ‘쿨’ 김성수 부녀 합류

17살 나이 차로 주목받은 가수 미나(48)·류필립(29) 부부(사진)가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 하차한다고 KBS가 19일 밝혔다.

미나·류필립 부부는 방송에서 신선살림기와 가슴 아픈 가족사를 고백하며 시청자의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류필립이 내년 영화 촬영 준비와 외국 일정을 앞두고 19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한다.

류필립 자리는 쿨의 김성수가 채운다. 김성수는 13살 딸을 아직 ‘아기’라고 표현하



는 ‘딸바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김성수 부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에 만나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특집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남북정상회담 특별생방송 평화, 새로운 미래	50 KBC 모닝 730
8		00 KBS 아침 뉴스타임		45 닥터 365 50 SBS 뉴스특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9~10부
9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		40 지구촌 뉴스		
11		00 오늘의 탐정(재)		
12		10 속보이든TV 인사이드(재)		
1		1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특집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누가 누가 잘하나		
5		00 또봇 V 30 주간연예수첩 30 영상앨범 산(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50 끝까지 사랑	55 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리락
8		30 글로벌24 55 속보이든TV 인사이드		00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특집 KBS 뉴스 9			
10	00 특집 대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한반도 평화의 길	00 오늘의 탐정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30 오늘밤 김제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0 MBC 남북정상회담 특별대담 평화, 새로운 미래	10 무학행 1~2부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문화사색	30 SBS 특집토론 제3차 남북 정상회담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잇동네 걸그룹)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엠바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브라질 4부〉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카 폴리	21:30 한국기행
08:45 랄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우리동네 이방인 4부〉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즈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시골에 온 오늘의 기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송판)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5:05 지식채널e
	17:15 두다다쿵	25:10 과학다큐-비온드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0일(음 8월 11일 乙卯)

<p> 36년생 극복하려면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 48년생 맡는 역할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지겠다. 60년생 상호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7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위상이니라. 84년생 듣다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2, 28</p>	<p> 42년생 머지않아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54년생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한다면 무탈 하리라. 66년생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게 되리라. 78년생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일 중용해야 하는 단계로다. 90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1, 07</p>
<p> 37년생 넓고 깊은 물속에 큰 물고기가 사는 법이다. 49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61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73년생 실효성이 증하다. 85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 보다는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33, 59</p>	<p> 43년생 하찮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55년생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67년생 단도직입적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79년생 의연히 대처하자. 91년생 내용성이 없다면 그저 공허할 뿐이니라. 행운의 숫자 : 69, 11</p>
<p> 38년생 충분한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0년생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62년생 무탈할 것이니 안심하고 임해도 된다. 74년생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알차다. 86년생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일일이 확인하라. 행운의 숫자 : 09, 43</p>	<p> 44년생 예전과는 달리 흐름이 심상치 않다. 56년생 단번에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예의 주시 해야겠다. 68년생 생 명분과 이해득실 앞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다. 80년생 잊고 있어도 상관없다. 92년생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해결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25, 91</p>
<p> 39년생 쌓아 올리다보면 완성한다. 51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63년생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의탁하는 성향이다. 75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87년생 현대의 방향을 좌우할 만한 요체는 따로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61, 47</p>	<p> 45년생 원인 요소부터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57년생 희망의 징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9년생 기회를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 위상을 제고시킨다. 81년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93년생 잘못 하다가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행운의 숫자 : 29, 89</p>
<p> 40년생 때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될 수다. 52년생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겠다. 64년생 균형과 실용이 중할 때이다. 76년생 애초부터 대동소이하였던 바이니 굳이 구분할 것까지는 없다. 88년생 순간의 착각이 커다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9, 57</p>	<p> 34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46년생 책무를 다 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58년생 지난날의 부진함을 만회하기에 좋은 날이니 잘 활용하자. 70년생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 82년생 관점을 달리해보자. 행운의 숫자 : 68, 96</p>
<p> 41년생 성사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53년생 제반 사항을 아우르며 매끄럽게 도모하라. 65년생 확장하려 하지 말고 유지함이 합리적이다. 77년생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도다. 89년생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6, 70</p>	<p> 35년생 급할수록 우회하는 것이 복잡함을 피하는 길이다. 47년생 안정세를 취해야겠다. 59년생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안전하다. 71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83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98, 1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